

게임할 때 데이터가 공짜? 이통사 '제로레이팅' 바람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도〉

게임사와 협력해 데이터 요금 부담 갤럭시노트9 출시 기점으로 붓물 콘텐츠시장서 이통사 영향력 우려



청소년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문제는 데이터다. 따로 와이파이를 통하는 곳이 아니면 데이터 소비량이 늘어나 요금 부담이 크다. 고화질의 게임일수록 소비하는 데이터도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게임 업체가 데이터를 매개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따로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을 통해서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돌풍을 일

으킨 나이언틱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에 소요되는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아 이슈가 된 이후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출시를 기점으로 붓물 터지듯 나오

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13일부터 예약판매를 실시한 갤럭시 노트9에 탑재된 게임 4종 실행 시 플레이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과금 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KT 갤럭시 노트9을 이용하면 단말에 탑재된 '피파온라인 4M', '검은사막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오버히트' 실행 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게임 플레이 데이터 과금 면제는 올해까지 적용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월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5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제로레이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에 맞춰 제로레이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셈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부터 게임사와 협력해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내달부터는 1020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영(0)'을 출시한 이후 중고생 고객이 게임, 커뮤니티, 포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차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넷마블, 네오위즈, 헝그리앱, 김급식, 스노우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를 즐기는 데 쓰는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입수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

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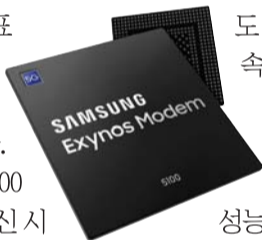
이통사들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주로 게임사와 협력해 내는 이유는 최근 고사양 모바일 게임이 다양하게 출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사양 게임의 경우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 입장에서 사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사 게임 신작 홍보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콘텐츠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형 게임을 제외한 중소 게임·콘텐츠 업체가 소외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업계 첫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

삼성전자 '엑시노스 모뎀 5100' 5G 모바일 상용화 앞당겨질 것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표준(5G NR 릴리즈-15)을 적용한 멀티모드 통신 칩인 엑시노스 모뎀 5100(사진)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단말기의 OTA 송수신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모뎀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OTA 시험은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무선 통신을 확인하는 테스트다. 이번 시험은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개발용 단말기와 5G NR 기지국(3.5GHz 대역)을 활용해 진행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송수신 시험 성공으로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5G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은 하나의 칩으로 5G뿐 아니라 각 세대별 이동통신 규격(GSM/CDMA, WCDMA/TD-SCDMA/HSPA, LTE 등)까지 지원하는 '멀티모드' 방식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5G 통신환경인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4G 제품보다 1.7배 빠른 최대 2Gbps의 데이터 통신속도를 지원하며, 초고주파 대역(밀리미터파)에서도 5배 빠른 6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한다. FHD 고화질 영화(3.7GB)를 5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소비자들은 향상된 모뎀 성능을 통해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자율 주행 등 대용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4G 통신환경에서도 1.6Gbps의 속도를 지원해 한층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2세대 10나노 첨단 공정이 적용되어 소비전력도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3.5GHz 5G NR 기지국을 공개한 데 이어 업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5G 모뎀을 개발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 올해 말부터 엑시노스 모뎀 5100과 함께 모뎀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솔루션(RFIC, ET, PMIC 등)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갤럭시노트9 팬과 즐기는 '갤럭시 팬 파티'

부산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 개최 입소문·호평에 열흘 간 2만명 신청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 국내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팬 파티를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갤럭시 S9 출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갤럭시 팬 파티'는 소비자들의 호평과 입소문을 타며 지난 8월 1일부터 약 열흘 간 2만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다.

14일 부산 청사포에 위치한 카페 라벨라치타에서 막을 올린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노트9의 새로운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함께 직접 체험해보고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갤럭시 노트9 사용자의 프리젠테이션, 서바이벌 퀴즈쇼, 갤럭시 팬 라이브 등을 통해 갤럭시 팬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했다. 블루투스 기능 탑재로 원격 제어를 가능하



부산 해운대구 라벨라치타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 in 부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포토존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9'의 '스마트 S펜'을 이용해 셀피를 찍는 모습. /삼성전자

게 해주는 '스마트 S펜', 촬영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색감을 조정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4000mAh 대용량 배터리 등 갤럭시 노트9의 강력한 성능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는 앞으로 2주 동안 광주(8월 15일, 커뷰), 대전(8월 17일, 롱디커피), 대구(8월 18일, 빌리웍스), 서울(8월 23일, 24일, 바이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한국지엠, 친환경車 20종 개발 박차

2023년까지 '제로 이미션' 출시 예정

한국지엠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쉐보레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현재 20명인 개발팀 인원을 더 늘릴 것이며 오는 2023년까지 20종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전기차 개발총괄 권성진 부장은 "오는 2023년까지 20개 차종 이상의 '제로 이미션'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며 볼트EV의 양산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김형민 한국지엠 구동개발 팀장은 "대부분 전기차는 피엠(PM)모터를 쓰고 있다. 효율이 높고 통제가 쉽다"며 "전기차 배터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우 기자

김 팀장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는 배터리 부피가 커서 차체의 성능과 실내공간에도 영향을 줬지만 한국지엠이 최근 개발한 배터리는 부피를 줄이고 티자형으로 설계돼 바닥배치가 가능해졌다. 배터리를 차 바닥면에 깔면서 차체가 넓어졌고 충격 흡수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의 볼트EV는 10.2인치 가로로 넓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지엠은 고객이 스마트폰과 연결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고객 맞춤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시스템을 총칭하는 장치다. 차 안에서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볼 수 있는 TV나 내비게이션, 다양한 오락거리 등을 포함한다.

LG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판매량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대형 OLED 판매 실적이 130만대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60만여대와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다.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있는 55, 65, 77인치 패널 모두 판매가 고무 증가했다.

OLED 패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TV업체들이 OLED가 주는 가치를 인정해 OLED TV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LG전자를 시작으로 일본 소니·도시바·파나소닉, 유럽의 필립스·그룬디·뢰베·메츠·베스텔·뱅앤올룹슨(B&O) 등 유수의 업체가 OLED TV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하이센스가 합류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LED는 블랙을 표현해 LCD가 결코 구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명암비를 자랑한다. 풍부하고 정확한 색표현과 LCD보다

대형 OLED패널, LG디스플레이가 '평정'



LG디스플레이 65인치 CSO(Crystal Sound OLED) 제품 이미지. /LG디스플레이

100배 빠른 응답속도 등 전반적인 화질 측면에서 OLED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인정받고 있다고 LG디스플레이 측은 설명했다. 또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백라이트가 필요없고 초박형 구현이 가능해 투명, 플렉서블, 벤더블과 같은 미래형 제품 구현에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OLED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선정,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판매량 증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형 OLED 사업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